

# 월간미술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08  
Korea  
문화재단  
KIPARCOR



2014 08  
[www.monhlyart.com](http://www.monhlyart.com)



〈파워 세일〉(가운데) 캔버스에 아크릴 380×840cm 2014

### 중형무진 세대공감의 현장

#### 플라토에서 열린 〈스펙트럼 스펙트럼전〉

플라토는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스펙트럼 스펙트럼전〉(7.24~10.12)을 열었다.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2001년부터 5회간 진행된 아트스펙트럼에서 전시했던 작가 7인이 각각 7인(팀)의 신진작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총 14팀이 참여해 26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김범과 길종상, 미나와 Sasa와 함께한 슬기와 민, 지니서와 홍영인, 오인환과 이미혜, 이동기와 이주리, 이형구와 정지현, 정수진과 경현수가 함께 했다.

이들이 협업으로 하나의 작품을 선보인 방식은 아니나 전시기간 자유롭게, 한편으로 서로의 작업을 다독이며 각자의 작품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이동기와 이주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작품 세계 또한 매우 다르다. 그러나 회화라는 매체에서 동질감을 찾으며 공통점을 공유했다. 정수진과 경현수는 동년배 화가란 공통점을 갖는다. 김범과 길종상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고민과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오고갔다. 지니서와 홍영인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선후배이자 동료 사이인 오인환과 이미혜는 전혀 다른 주제의 작품을 전시에 선보였다. 결국은 '차이'라는 문제를 중요시하는 공통점이 드러난다. 이렇듯 참여 작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통을 이뤄냈다. 선배 격인 추천인이 추천받은 작가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가르치는 식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고민과 이상을 공유하는 형태로 전시가 진행되

어 흥미롭다. 작가개개인의 작업과 더불어 작업 간의 하모니도 이번 전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또한 회화,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가 복합된 전시로 시각적 자극을 준다.

전시기간 3차례의 아티스트 토크와 2번의 라운드 테이블(참여작가들과 비평가 및 미술전문기자 토론)이 진행되어 작가들이 작품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